내 곁의 우리 삶 : 구체의 과학으로서 교육인문학

Toward Intimate Community: Humanistic Education as the Science of the Concrete

정은 **Eun Cheong**
영남대학교
Yeongnam University

국문요약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한 개인 한 개인의 자취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든다는 오래된 사실을 재발견해 나가고 있다. 기대하건데 이번 경험을 계기로 개인이 우선이냐 공동체가 우선이냐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하에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윤리적 논쟁이 이제는 사그라졌으면 한다. 왜냐하면 개인과 공동체는 대립개념이 아니며, 공동체는 개인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공동의 사회생활의 역사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고 이런 점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유기적 통일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한 개인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그 역사에는 수많은 다양한 타인들의 개인사가 담겨 있다. 교육은 이러한 '나'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공유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공동체를 선물해 온 문화적 활동이다. '내 곁의 우리 삶, 구체의 과학으로서 교육인문학'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체의 과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진 것은 아마도 Lévi-Struass를 통해서일 것인데, 사실 학문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체의 과학이라는 전통은 Lévi-Struass 뿐만 아니라 Vygotsky(심리학), Lurija(뇌과학), Sacks(신경학), Jantzen(장애인교육학), Todd(교육학) 또 Wilson(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고 또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점점 추상화되어 가는 학문인식론(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서 구체의 과학을 통해 생태미학적 연구지평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생태'라고 하면 그저 자연환경 정도를 떠올리지만, 정확히 말해 생태란 인간을 포함하여 각종 생명체들이 서로 관계 맺고 있음 그 자체를 표현하는 용어다. '생태미학적'이라 함은 이런 맥락에서 각 생명개체가 세계에 감응(感應)하는 고유한 양식들에 귀 기울이고 그 고유함들 간의 교류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임을 깨닫고 느끼고자 하는 사유방식이자 실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체의 과학으로서 교육인문학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나는 Wilson의 "일일이 이해하고"라는 표현을 빌리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적 한계는 '우리'가 되면서 그 차원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일일이 이해'한다는 것, 또 다른 생명체를 탐구하고 친해지는 것은 단순히 인간 삶의 편리나 풍요로움을 위

한 도구적 과제가 아니다. 이것은 매순간 새로운 '살아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는 도덕적 실천이며 생명 진화의 과정에서 있어서는 지극히 보편적인 행동이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연결됨의 실체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간의 교류가 마치 "도기 위에 있는 도공의 손처럼" 서로의 삶에 기꺼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새로운 실천이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인문학의 생태미학적 지평은 개인들이 "연대함과 동시에 점점 더 다르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In the wake of the COVID-19 crisis, we are rediscovering an old fact where each individual's trace brings about a new way of life for us all. As expected, I hope that this experience will dissipate the ethical debate that has been practiced under the dichotomy of whether the individual or community comes first. This is because individual and community are not confrontational concepts, and community is synonymous with individual. Humans have reached today through a history of social life common to humanity, an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re an organic unity in this sense. 'My life' is the history of one individual, but this history encompasses the collective history of all people. Education is a cultural activity that has given the human community to each person by reflecting and sharing 'my' and 'our' history. 'Our Life by Me: Educational Humanities as a Sphere Science' starts from this recognition.

It is probably through Lévi-Strauss that the term 'Science of the Concrete' became known to most people. In fact, the tradition of the science of concrete has continuously been emphasized by not only Lévi-Strauss but also in various fields including Vygotsky (psychology), Lurija (brain science), Sacks (neurology), Jantzen (disability education), Todd (education), and Wilson (biology). They seem to be all presenting an ecological aesthetic research horizon through the science of concrete in critical reflection on the increasingly abstracted academic cognition theory (research methodology) under the name of science. While we simply think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ecology', in actuality ecology is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e living organisims, including humans. From this context, ecological aesthetics is a way of thinking and practice in where each living entity listens to the unique styles responding to the world, and seeks

to realize and feel that the exchange as the source of enriching life.

To express the identity of educational humanities as a science of the concrete in one word, I would like to borrow the phrase "understanding everything" by Wilson, because we humans have no way to get to know each other without going through someone's personal life. However, these existential limits change as we become 'we'; because 'we' give birth to 'us'. Hence, "understanding everything" of all kinds of people, exploring and getting acquainted with other life forms are not simply a means for the convenience or abundance of human life. This is a moral practice that presents to us a new "living" every moment, and it has been common practice in the evolution of life. In other words, this is a new practice in which exchanges among all living things, which exist as the substance of connection, leave their "own trace" in each other's life "like a potter's hand on pottery." Here, the ecological horizon of educational humanities is in the process of individuals "becoming different while building solidarity."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한 개인 한 개인의 자취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든다는 오래된 사실을 재발견해 나가고 있다. 기대하건데 이번 경험을 계기로 개인이 우선이냐 공동체가 우선이냐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 하에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윤리적 논쟁이 이제는 사그라졌으면 한다. 왜냐하면 개인과 공동체는 대립개념이 아니며, 공동체는 개인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장회익, 2008). 인간은 인간 공동의 사회생활의 역사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고 이런 점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유기적 통일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한 개인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그 역사에는 수많은 다양한 타인들의 개인사가 담겨 있다. 교육은 이러한 '나'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공유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공동체를 선물해 온 문화적 활동이다. '내 곁의 우리 삶, 구체의 과학으로서 교육인문학'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체의 과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진 것은 아마도 Lévi-Struass를 통해서일 것이다. Lévi-Struass(2017)는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인간은 자연세계 그 자체에 대한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순수하게 지적이며 그래서 미적인 사고를 '야생의 사고'라고 하였다. 구체의 과학이란 이런 맥락에서 야생의 사고에 또 다른 (합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학문으로, 역동적인 인식방법론이며 지금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생태미학적 학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정은,

2020: 12-13). 사실 학문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체의 과학이라는 전통은 Lévi-Struass 뿐만 아니라 Vygotsky(심리학), Lurija(뇌과학), Sacks(신경학), Jantzen(장애인교육학), Todd(교육학) 또 Wilson(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고 또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점점 추상화되어 가는 학문인식론(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서 구체의 과학을 통해 생태미학적 연구지평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생태'라고 하면 그저 자연환경 정도를 떠올리지만, 정확히 말해 생태란 인간을 포함하여 각종 생명체들이 서로 관계 맺고 있음 그 자체를 표현하는 용어다. '생태미학적'이라 함은 이런 맥락에서 각 생명개체가 세계에 감응(感應)하는 고유한 양식들에 귀 기울이고 그 고유함들 간의 교류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임을 깨닫고 느끼고자 하는 사유방식이자 실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의 과학으로서 교육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개체들 간의 섞임과 부딪힘 또 포용의 맥락에서 우리의 앎(배움)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교육은 그 어떤 활동보다 본질적으로 인문학적인 활동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구체의 과학으로서 교육인문학 : "일일이 이해하고"

주지하다시피 현대의 교육은 점점 추상화 되어 가고 있다. 인간에 대해 추상적으로 배우고 생명의 문화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며, 정작 자신을 둘러싼 타인들이나 생명세계와 섬세하게 대화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활동 매개물의 추상화는 나아가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추상화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소외에 따른 자기소외의 폐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추상화된 생명의 세계를 우리의 살갗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이제까지의 교육 방식이나 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책을 통해 세계의 온갖 수종에 대해 배우지만 정작 자신이 '아는 나무'는 없는 현실, 혹은 인권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가운데에는 지극히 추상화된 인간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지금의 교육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 교실에서 학생들은 학습자의 자리에 매김 되고 그때그때마다의 상황 속에서 통째로 '파악'되거나 그냥 '관리'된다. 우리에게 이것은 익숙하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꽃피우는데 필요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은 퇴화"할지 모른다(Illich, 2019: 25). 배움을 위해 만났건만, 교사-사람과 학생-사람은 제각각 내가 이러다 사람을 잃겠구나 싶은 위기감으로 갈수록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체의 과학으로서 교육인문학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나는 Wilson의 "일일이 이해하고"(Wilson, 2010: 139)라는 표현을 빌리고 싶다. 이러한 행위가 Wilson에게 생

명체 각 종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가는 작업이라면, 교사에게 그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가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 학생을 학습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찰력이란 예를 들어,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사(교수자)'가 되고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학생(학습자)'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도적 객체가 되어가는 현실을 제때 순발력 있게 자각해내는 자기성찰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집단생활을 통해서만 개인의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유한한 존재다. 즉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 개인 한 개인을 만나고 사귀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알아갈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적 한계는 '우리'가 되면서 그 차원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낳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를 낳는다는 말은 기존의 '내가 포함된 우리(나와 너)'가 넓어지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나-우리-모두'로 질적 변화가 일어남을 가리킨다. 앞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생존을 통해 개체(개인)의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적 존재라고 했는데, 장회익(2008)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생명의 개념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온생명을 새로운 생명의 단위로 제안한 바 있다. 내용인즉, 사람들은 흔히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살아 있음'을 말해주는 그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것을 생명이라 부르고" 있지만(같은 책: 112) 사실 "생명이라는 것 곧, '살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은 특정의 생명체 안에 들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생명체와 이를 살게 해주는 외부의 여건이 함께 작동할 때에 나타나는 그 어떤 성격"이라는 주장이다(같은 책: 114). 쉽게 말해 생명의 단위는 개체 수준(낱생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온생명이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의 의식주체로 거듭나게" 된다고 설명한다(같은 책: 88). 이 말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인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즉 그 속에 공동체문화 내지 공동체정신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인간다수의 집합은 인간공동체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Guattari(2003: 17)는 생태철학의 관점에서 "주체화의 백터가 반드시 개인을 경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데, 이 역시 장회익이 공동체가 개인 삶의 또 다른 주체(즉 공동주체)가 된다고 한 주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인간이든 다른 생명체든 개체(개인) 본연의 삶은 모든 순간 집단적,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이라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 '우리'도, 생명 즉 '살아 있음'도 모두 그 본질은 연결에 있으며 교육인문학도 여기에 기초한다. 아울러 서두에서 말한 '교육은 인간 개개인에게 인간공동체를 선물해 온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 역시 이런 맥락이다.
교육인문학의 중심은 당연히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은 추상적 인간 개체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 세계와 관계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개인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개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이

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공동주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공동주체가 깃들어 있는 그 공동체에는 인간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이외 무수한 생명체들, 동물, 식물 그야말로 대자연이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자연에서 생겨났고 여전히 대자연에 의존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대자연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일일이 이해'한다는 것, 또 다른 생명체를 탐구하고 친해지는 것은 단순히 인간 삶의 편리나 풍요로움을 위한 도구적 과제가 아니다. 이것은 매순간 새로운 '살아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는 도덕적 실천이며 생명 진화의 과정에서 있어서는 지극히 보편적인 행동이었다. 이에 Wilson(2010: 97)은 "친화는 도덕적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생물 종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지식은 그것들의 거대한 다양성을 수용할 만큼 더 늘어나고, 그것들은 물론이고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게 될 가치도 더 커집니다."라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일찍이 Lévi-Struass가 야생의 사고에 부여했던 가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삶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 온갖 생명체들에 대해 당장의 필요나 불필요 혹은 의미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게 생명 세계를 경청하고 또 그와 소통하며 정신문화를 일구어왔다.

III. 교육인문학의 생태미학적 지평 : "도기 위에 있는 도공의 손처럼"

"친절한 사람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삶은 곧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이다"(정은, 2020: 27).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 대해서도 그야말로 아는 만큼만 알 따름이고, 어쩌면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도 조금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렇듯 아는 것이 조금밖에 없다보니 무궁무진한 생명 세계의 풍요로움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낯선 이를 만나게 되면 행여 무분별한 환대가 아닐까 망설이고 뭐든 상대방에게 먼저 해보라고 초대 아닌 초대를 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고 한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生)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서두에서 '생태미학적이라는 것은 각 생명개체가 세계에 감응(感應)하는 고유한 양식들에 귀 기울이고 그 고유함들 간의 교류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임을 깨닫고 느끼고자 하는 사유방식이자 실천방식'이라고 하였는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위에서 언급한 망설임이나 위축 등은 생태미학적 실천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교육인문학적 실천에 담보된 생태미학적 가능성에 대해 또 그 중요성에 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학교 교실 안에서 우리는 갖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일종의 행동 규범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사물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이나 판단 근거일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기준들은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생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기

준들은 크게 보면 모두 생존과 결부된 윤리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 다를 때가 많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모두를 다양함의 울타리 안에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뭔가를 구분해 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이다. 혹시 이 수많은 다름과 갈등을 끌어안고 살아갈 방법을 안내해 줄 나침반 같은 것은 없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Guattari(2003: 34-36)는 숱한 다름과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보스럽고 유치한 합의(일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불일치와 실존의 특이한 생산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불일치와 실존의 특이한 생산'에 의한 "다양한 실천 수준은 서로를 어떤 초월적인 후원 하에 동질화하고 연결해" 가기보다 "오히려 이질 발생적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실천 수준을 개입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생태학적 실천의 목표는 고립되고 억압당하고 공회전을 하는 특이성을 과정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쉽게 말해, 다름을 동일로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이 가능한 사회(일상) 조건을 만들고 유지하여, 끊임없이 특이성 즉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생성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다양함의 자유로운 교류가 교육인문학의 방법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 서로 주고받을 삶의 내용이 있고(계속 생길 것이고) 이러한 각양각생의 접촉으로 인해 서로는 더 다르게, 즉 더 다양하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늘 배울 것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통한 배움은 서로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서로의 존재를 응원하는 문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하여 각 생명개체가 세계에 감응(感應)하는 고유한 양식들에 귀 기울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육인문학의 과제고 또 교육인문학의 생태미학적 가능성이다.

한 인간 한 인간이 특별하고 고유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이 차이나는 개인들을 비슷한 모습으로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측면이 크다. 물론 그 세부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를 통해 일구어낸 성과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성취들도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각 생명개체들 간의 자유로운 연결과 접촉, 여기에서 촉발되는 미적-윤리적 요구들에 우선시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Guattari(2003: 57)는 "새로운 자아 실천"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실천, 새로운 미적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도기 위에 있는 도공의 손처럼" 서로의 삶에 기꺼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새로운 실천이다(W. Benjamin: Guattari, 2003: 55 재인용). 따라서 "개인들은 연대함과 동시에 점점 더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Guattari(2003: 57)의 주장은 교육인문학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이기도 한데 이것은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 사귀면 사귈수록 또 다양하게 사귀면 사귈수록 각자가 더욱 더 다

른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는 창조적인 존재다.

IV. 나가는 말

도공은 도기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그것이 가능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의 과학으로서 교육인문학 실천이나 그 속에 담긴 생태미학적 가능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의 작가 Pérez-Reverte(2010: 289)의 표현처럼 "그런데 그 곳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는 모양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 그 곳에 있지 않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모양이었다."라고 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마치 그 작품 속 주인공 파울케스가 "눈을 예리하게 단련시킴으로써 사진과 그림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타인과 또 우리 스스로와 '순수하게 지적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라도 교육의 인문학적 속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고 그 중요성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더욱 섬세해지기를, 또 이를 통해 "교환될 수 없는 사용가치가 그 중심을 차지"(Illich, 2019: 31)하는 인간문화, 교육문화가 복원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를 잇는 매듭이다. 현생에서 또 훗날 그 매듭의 살갗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무늬에 귀속될 것이다. 이것은 Guattari의 표현처럼 '미적-윤리적 주장'이다..

참고문헌

장회익(2008). 온생명과 환경, 공동체적 삶. 서울: 생각의 나무.

정은(2020). 이웃교육 관점에서 통합교육의 의미 재성찰. 한국장애학, 5(1), 11-33.

Benjamin, W.(1983). Essais 2, trad. Maurice de Gandillac, Paris, Denoël, Gonthier.

Guattari, F.(2003). 세 가지 생태학(윤수종 역). 서울; 동문선.

Illich, I.(2019).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허택 역). 서울: 느린걸음.

Lévi-Struass, C.(2017). 야생의 사고(안정남 역). 파주: 한길사.

Pérez-Reverte, A(2010).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김수진 역). 서울: 시공사.

Wilson, E.(2010). 생명의 편지(권기호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